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 영암군, 치매안심·정신 건강복지센터 준공식 개최

### 재활·치매·정신 등 맞춤 통합프로그램 제공



영암군은 지난 26일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준공식 행사는 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영암군보건소 옆에 위치한 신축 건물은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연면

적 1,206㎡(365평)에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2층은 치매안심센터, 3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복합건물로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각 사업에 맞는 재활, 치매, 정신 등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활치료실은 부하운동기, 하체 근력 강화기, 트레이드밀 등 재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의료 재활 및 심리재활, 특수재활 등 통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안심센터는 현 정부 국가책 입제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치매 상담, 조기검진, 저소득층 치료비지원, 사례관리, 가족 자조모임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사업인 치매환자쉼터 운영, 배회감지기 보급, 중증환자 공공후견인사업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치매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상담, 우울증 선별검사, 사례관리, 우울증 예방교육, 정신건강교실 운영, 농약보관함 보급 및 모니터링, 생명지킴이 양성,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교육 실시하는 등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재활치료와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건강회복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담양군이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고병주 부군수를 주제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집행률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2,784억원 중 55.8%인 1,553억원 집행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수시 실적점검 등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병주 부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대기지급 기한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실적을 높이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장흥군, 삼산간척지 상습침수 해결에 '총력'

장흥군은 삼산 간척지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배수로 퇴적토 준설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흥군 관산읍에 위치한 삼산간척지는 1996~2009년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조성된 420ha 규모의 간척농지다.

해수면을 매립해 농지를 조성한 탓에 최근 용·배수로에 갈대가 무

성하게 자라고 토사가 퇴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간척 농지 조성 후 10년이 경과돼 갈대 뿌리와 잡목 등으로 배수처리가 원활 하지않아 저지대 농경지 288ha의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생긴 것.

군은 용·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퇴적토 준설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배수로 8km, 승수로 5km의 갈대 뿌리와 퇴적토를 준설하면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퇴적토 준설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원활한 배수처리로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 무안군, 양파 노균병 예방 철저 방제 당부

무안군은 포근한 겨울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양파 노균병이 발생하기 좋은 상황이며 현지 포장 예찰 결과 사전 방제를 한 밭과 방제가 늦어진 밭의 노균병 발생 정도가 확연히 농가들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현지 예찰을 실시하여 노균병 발생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양파 노균병은 비가 온 뒤 병증상이 더욱 확대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잎마름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침투 효과가 있는 치료용 살균제를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이 좋으며, 양파에 사용 가능한 등록 약제를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4회~5회 적당 살포하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일부 포장에서 노균병이 집중 발생하고 있고 감열포기에서 분생포자가 발생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분주'

### 전문가 컨설팅 진행...내달 부서별 과제 보고회 개최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준비로 분주하다.

여수시는 지난 21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시청 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부서별 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방향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으로 나선 오미란 박사는 부서별 업무계획과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여성참여확대, 양성평등 실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오미란 박사는 "여수시는 지난 200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의미 있는 도시다"면서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복합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4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인지 정책 교육과 성별영향평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전부서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특색 있는 여성친화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는 5년마다 지정된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수=송기홍 기자



# 화순군,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후속 교육

지난 25일 화순군은 강소농 51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후속교육(5회 차)'을 실시했다.

강소농 교육은 농업인들이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있는 경영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

지난 2월 11일 시작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이하 강소농 교육)은 4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모두 8강으로 기본교육(1회), 심화교육(1회), 후속교육(6회)으로 운영한다.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에서는 강소농 개념, 강소농의 실천 목표인 비·풀·고·가·역(비용절감·품질향상·고객확대·가치향상·역량강화) 달성하기 위한 농가별 목표 설정, 관계형성의 가치 중심 마케팅 등을 강의했다. 경영계획서 작성 실습은 수강 강소농에게 공감을 끌어냈다.

이어지는 후속교육은 농장 100년을 위한 핵심가치 찾기, SNS 마케팅을 위한 사진 촬영 기법, 매력적인 상품 콘셉트 개념화 가치를 공유하는 디스플레이 전략, 고객관리와 고객 DB와 등을 주제로 한다.

화순군의 강소농 교육은 2011년부터 운영해 왔다. 2018년까지 강소농 408명이 참여해 농산물 홍보·유통·마케팅 역량 강화, 전문가 컨설팅, 소득증가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사업 교육 등을 시행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농업경영 및 홍보 활동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농장과 제품의 차별화 마케팅이 대두되고 있어 지속적인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을 통한 이러한 마케팅 활동 촉진을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완도군, 청산도로 떠나는 2019 슬로걷기축제 개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가 유채꽃의 노란빛으로 물든 가운데 2019 청산도 슬로걷기축제가 오는 4월 8일 막이 오른다.

올해는 '느림은 행복이다'는 주제로 힐링 여행, 나눔 여행, 공적여행, 가치 있는 여행 등 4가지 테마로 청산도 전역에서 한 달간 개최된다.

힐링 여행은 청산 주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느끼고 들여다보고, 나눔 여행은 앱을 설치하여 걷는 만큼 '꽃이'가 기부되어 사계절 꽃피는 청산도로 아름답게 꾸꾸고 아름다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다.

공적 여행은 어떠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여행을 펼치고, 가치 있는 여행은 청산도만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의 전통 문화를 보고 배우며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완도군은 이번 축제를 위해 슬로길(42.196km)의 곳곳(12ha)에 유채와 봄등을 심어 노란 꽃밭을 만들고 청보리도 심어 봄바람에 청보리가 일렁이면 탁 트인 푸른 바다와 함께 장관을 이룰 관광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로 변 공한지를 일제 정비하여 리빙스톤에이지, 펜지, 비올라 등 봄꽃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기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취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